

회원소식

중 앙 정 부

환경부, 수돗물 마음 놓고 마시도록 수질관리 강화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불신해소를 위한 수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과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

의 옥내급수관은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납, 아연, 동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급수관을 도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갱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 초과 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 시,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5 NTU 초과, 분원성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주민에게 라디오, 신문 등으로 알릴아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해마다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 생산과 공급과정, 원수와 정수의 수질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한편, 2007년부터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2008년부터 연 1회 55개 전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있는 급수관, 수도꼭지 제품은 2009년 6월 30일까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예고함으로써 값싼 저질제품의 사용이 억제되고, 국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수도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5년마다 위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수도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경주 '감포댐' 준공으로 지역 식수격정 덜어

상습 가뭄지역인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일부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해 온 감포댐이 마침내 준공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2년 착공한 경주 감포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7월 6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지사,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감포댐은 저수용량 240만㎡

규모로, 해당 지자체의 요청으로 국고 248억원과 지방비 52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된 최초의 소규모 용수전용댐이다. 이번에 완공된 감포댐은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포항시 장기면 지역에 하루 4500㎡의 생활용수를 공급, 해마다 2~5월에 겪어왔던 제한급수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건교부 수자원개발팀 김성탁 팀장은 “댐 주변에 조성된 전망대 등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동해안의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감포항, 대왕암, 감은사지 등이 위치한 감포읍과 인근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대책 모색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런던협약 '96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이 본격 논의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1일 외교안보연구원

에서 강무현 차관을 비롯한 학계, 연구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96의정서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4일에 발효된 '96의정서는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양투기가 허용되며, 투기해역 내의 환경평가 등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이 협약 가입준비를 위해 지난 3월 21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수오니(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처리장의 정수과정 중 발생한 물질) 등 산업폐기물 5종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허용 기준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2011년까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지난해 993만톤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 · 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동남아 물시장 본격 진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남아 물시장 진출을 본격화 한다. 수공은 지난 6월 21일 태국 방콕 UN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본부에서 통합수자원관리(IMRM)의 확산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지원에 합의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MOU 체결로 수공은 62개 UNESCAP 회원국, 특히 동남아 지역 국가에 대한 댐·수력발전·상수도·농업용 관개수리시설의 조사설계, 공사·감리, 운영관리분야 기술지원 및 사업 참여를 확대·촉진할 계획이다. 이어 UNESCAP과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자원개발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마련, 이들 국가의 공공·민간부문의 수자원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수공의 곽결호 사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선진 물 관리기술을 바탕으로 UNESCAP과 긴밀하게 협력해 개발도상에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관리공단·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운영관리 워크숍 개최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13회 상수도 운영관리 워크숍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상수도 분야 종사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워크숍에 대해 한 관계자는 “본 행사가 소규모 상수도(마을상수도 등)로 인한 현안문제 해결과 상수도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기술 및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사무국 이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지난 6월 2일 학회 사무국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로 옮긴 학회 사무국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9번지 선릉롯데골드로스Ⅱ 2층 212호이며, 학회 대표전화는 02)567-6960~10이다.

(사)대한상하수도학회, 하수관거정비 관련 세미나 개최



대한상하수도학회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후원으로 지난 7월 7일 단국대학교 서관 1104호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불명수 저감대책 및 성과

지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관해 학회 관계자는 “하수관거정비 사업 시 불명수(I/I) 저감방안 및 공사 시 성과지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도 · 특광역시

서울특별시, 월드컵 기간 동안 수돗물 홍보 적극 나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월드컵 기간을 이용해 ‘아리수’ 홍보에 나섰다. 이에 본부는 독일 월드컵 예선전이 열리는 지난 5월 13일(토고 전)과 19일(프랑스 전), 24일(스위스 전)에 서울광장에서 500ml짜리 아리수 3만 병씩 총 9만 병을 거리 응원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2006 월드컵과 함께하는 깨끗한 수돗물 아리수’라는 슬로건으로 냉동탑차까지 동원해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시원한 아리수를 제공했다. 이처럼 본부가 아리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수돗물=끓여 먹는 물’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아리수 탐구교실’도 150회 가량 열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명장배수지로 6만여 세대에 안정된 수돗물 공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명장동, 반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명장배수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6월 22일 배수지 상부 체육공원에서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수돗물 관련인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금번 공사는 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지난 2003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3년 4개월만인 금년 6월까지 5,600평 부지에 35천톤 규모의 배수지설치를 완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동수원지를 상수원으로 부산시민의 11%의 급수를 담당하는 명장정수장은 지금까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직접 가압급수방식으로 공급하였으나, 금회 설치된 배수지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진 간접 균등급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본부 관계자는 “배수지 상부(약2,000평)를 체육시설과 친환경적인 휴식장으로 개방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회원소식

대구광역시, 세입자 편의 위한 개별계량기 설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독립생활 공간 확보를 원하는 신세대가 증가하면서 생활 단위별로 상수도요금 납부를 희망하고 있어 시민편익의 일환으로, 개별계량기 설치대상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거 상수도 생산용량 부족으로 인해 수도물 사용량을 계량하는 수도계량기 설치는 1개소에 1급수장치를 원칙으로 시행하였고, 1개의 급수전으로 여러 업종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구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요금을 구분하여 고지하여 왔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급수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세입자 편의를 위한 개별계량기 설치 시행으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사용자간의 요금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수도물 수질정보 실시간 제공기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7월 8일, 오는 11월부터 수도물 수질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aterworksh.incheon.kr>)와 인천시내 곳곳에 설치된 대기전광판을 통해 부평·남동·공촌·수산

정수장 등 4개 정수장의 수질정보를 24시간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수질측정에서 중요한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등 3개 항목이다.

현재 본부에서는 매일 한 차례 인터넷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도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상수도 수탁공사비 전액 지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6월 29일,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수도물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7월부터 상수도 수탁급수공사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실질적인 상수도 급수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부에서는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13mm 기준으로 모두 113만1000원이 소요되는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수도꼭지 수질확인제 실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수용기(주택·아파트·상가 등)를 직접 방문, 수도꼭지 수도물을 현장에서 검사하고 ‘수질적합’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수도물을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수도

꼭지 수질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꼭지 수질확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도물 수질의 중요성을 감안해 1차적으로 소독상태 및 녹물 출수 여부와 수도물 안전성을 확인하며, 2차적으로 수도관 재질이나 노후에 따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개 항목을 정밀 검사한다.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질이 적합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게 된다. 본부의 관계자는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물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볼 수도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정수로 ‘수도물 브랜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청정지역인 가평과 연천에서 나온 수도물을 도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이른바 ‘수도물 브랜드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 상류에 있는 자라섬에 망속 7~8미터 아래

청정 지하수가 길이 550미터 지름 800밀리미터의 T자형 관을 타고 지상 정수장으로 올라온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는 T자형 관에 설치된 50센티미터 두께의 큰 자갈층과 모래, 진흙층을 지나게 돼 기본적인 소독만 하면 그 자리에서 마실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 물을 ‘살아있는 수도물’로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청정수를 페트병에 담아 도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이른바 ‘수도물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철 경기도청 환경보건국장은 “도내 시·군에서 이뤄지는 체육회 등 여러 행사 때 이 생수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도 수도물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살아있는 청정 수도물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서 무료로 마실 수 있다.

경상북도,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대폭 확충



경상북도는 민선 이후 현재까지 1조8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34개소(처리용량: 998천톤), 분뇨처리장 25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장 2개소를 완공 가동 중에 있다.

또한 2010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46개소를 신·증설하여 하수처리율을 현재 59%에서 선진국수준인 75%로 끌어 올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8개소로 확충하여 일일 795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 및 농어촌지역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금년도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4,066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해당 시·군에는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동참키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어승생수원지에 맑은 물 공급



제주도 어승생수원지 통합정수처리시설이 지난 7월 20일부터 부분적으로 조기 준공돼 맑은 물이 공급되게 되었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등 70억원을 투입해 하루 1만5000톤의 정수처리시설을 갖춘 이 사업을 추진, 올해 말 완공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어승생저수지가 1972년 준공돼 중산간 지역 8개 마을 1만3000여 명에게 용수를 공급해왔으나, 지선별로 시설된 여과시설

노후 등으로 집중호우 시 일부 탁도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제기된데 따라 조치되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여름철 급수 성수를 맞아 위생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여과기를 먼저 가동, 조기에 정수처리된 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오는 12월 마무리되면 21개리 2만 6000여 명, 60개 목장 등에 확대 공급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골프장과 펜션, 관광휴양시설 등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중산간지역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를 대비한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할 수 있고, 신규 지하수 개발 제한에 따른 지하수자원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시·군

군포시, '물 테마 체험관' 개관



경기도 군포시 수도사업소는 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테마 체험관'을 지난 6월

29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로써 군포시가 지난 1월부터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리산자락에 위치한 군포정수장 내에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물을 주제로 한 학습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도내 최초로 건립하게 되었다.

체험관의 구성은 체험관 내부 전시시설 및 내용 등을 소개하는 도입부, 지구의 탄생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물이 탄생되어 왔는지와 우리나라 상수도의 발달사를 연표형태로 정리한 생명의 물, 입을 통해 공급된 물이 인체의 각 기관으로 공급되고 순환되는 과정과 생활 속 물의 오염 원인을 입체패널로 구성하고 관람자가 직접 열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출된 정보의 물 코너가 있다. 또한 팔당에서 취수한 물이 수도사업소에 도착되어 수돗물로 탄생되는 과정과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애니메이션, 어린이들의 물 관련 글이나 그림을 전시하는 복합 문화 공간 등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포시 수도사업소 현경호 소장은 "체험관이 개관되어 본격 운영되면 물과 관련된 시설물인 물레방아와 조형분수 및 쉼터 등이 어우러져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 휴식공간으로도 각광받을은 물론, 상하수도 처리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도 내 최초의 물 체험학습장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수돗물 '슈퍼워터' PET병으로 생산·공급



경기도 평택시는 7월 5일, 양질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과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환으로 수돗물을 펫트(PET)병에 담아 생산,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진위면 마산리 송탄정수장에서 원수를 생산, 정수과정을 거친 뒤

후대가 편리하도록 펫트병에 담아 '슈퍼워터'라는 상표를 부착해 공급기로 했다. 시가 생산하는 '슈퍼워터'는 환경보전과 진위면 상수원관리에 대한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갖추고 오는 11월에는 자동화 설비로 생산될 예정이다. 시의 관계자는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면 시청, 출장소, 보건소 민원실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 공급하며 시민단체나 관공서 행사 시 무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원소식

김포시,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주력



경기도 김포시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포시는 수돗물에 대한 법정 23개 검사항목을 포함한 총 67개 항목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9개 항목은 매일 검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원수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 생산 후 각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 정수에 대한 맛, 냄새 등 9개 항목에 대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물질, 중금속류나 농약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수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김포시는 급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방지를 위해 수도꼭지, 노후관, 급수과정시설에 대해서도 꾸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돗물 홍보를 위해 정수장을 개방해 견학토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솔선하여 수돗물을 마시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김포시정수장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05년 전국 정수장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행정부에서 실시한 2004년 공기업 상수도 분야 경영평가에서는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가평군, 마을하수도 기공식 가져



경기도 가평군은 지난 7월 7일 신하리 셋마을 마을하수도 부지 내에서 가평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비롯한 환경관리공단, 시공사, 이장 및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하수도 기공식을 가졌다. 마을하수도 기공식을 가졌다.

마을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관망오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은 물론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이날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은 시삽을 함께하며 축하를 나눴다. 오는 200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가평읍 이화리를 비롯, 설악면 미사 1, 2리, 청평면 상천3리 및 호명리, 고성리, 하면 신하리 및 신상리 등 4개 읍·면 8개리에 1일 총 처리용량 86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시설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춘천시, 상하수도 시설 전면 정비

강원도 춘천시가 전면적인 상하수도 시설개선 및 보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후평4거리부터 팔호광장을 거쳐 운교4거리에 이르는



1.66km의 배수관로를 오는 11월 까지 확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6월 7일 밝혔다. 또한 또 용산정수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울문리~어린이인형극장에 이르는 2.3km의 상수관로를 연말까지 신설기로 했다.

또한 수돗물의 냄새를 제거하는 활성탄 투입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상수도 시설에 낙뢰보호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구축기로 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용산정수장 물이 공급되면서 매년 수질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됐던 신사우동 신복읍 등 강북지역도 소양정수장 물을 공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춘천호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사북면 지촌리와 신포리에 생활하수처리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시 외곽지역이 팽창하면서 전반적으로 급수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시, 수돗물 최적 상태 유지



강원도 속초시의 수돗물 수질이 먹는 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가 지난 5월 25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정수장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54개 모든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결과 중금속과 농약,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유기·무기물질 27개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시민들의 관심항목인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미생물에 관한 항목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속초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정수장, 상수원,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 '우수'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가 '제11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실천연합회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영천시 환경사업소는 우·오수분리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의 효율증대와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총 사업비 484억원을 들여 142.5km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영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하루 2만5천톤에서 4만톤으로 늘어났다.

창원시, 등업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마무리



경상남도 창원시가 농촌지역 생활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 중인 대산면(동읍)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대산면 유등리에 위치한 이 하수처리장은 수처리 시설물과 유입펌프동, 설비동, 관리동 등 건축물 6동을 비롯해 처리장 외곽에 중계펌프장 2개소와 차집관거 20.3km가 시설돼 있다. 또한 수처리 시설물은 하루에 1만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동읍과 대산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하수를 점차적으로 인입해 처리하고 오는 2009년부터는 하수처리구역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본관에서 운영요원이 감시제어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상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현재 건설 중인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경우 통합·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해시, '상수도 자동 검침' 우수혁신 브랜드사업으로 선정



경상남도 진해시는 '상수도 자동 검침시스템'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우수 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7월 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혁신 브랜드 사업 공모에는 전국 111개 지방자치단체가 163개의 자체 브랜드

사업을 '출품' 했다. 행정자치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40개 브랜드 사업을 대상으로 최근 사업내용의 실효성과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 진해시의 상수도 자동 검침시스템 등 20개 사업을 우수 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우수 혁신브랜드 사업에는 각 5,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오는 12월 혁신 브랜드 사업 추진성과보고대회 후 전국적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진해시의 상수도 자동 검침은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 대신 전자식 계량기와 옥외에 사용량을 표시하면서 송신기 역할을 하는 오토미터를 각각 설치하고, 반경 400m 이내 고층 건물이나 공공시설 옥상에 오토미터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 이를 상수도사업소 내 관제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오토게이트를 설치, 사용량을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자치부는 진해시의 자동 검침시스템이 방문검침이 필요 없어 검침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시 검침이 가능해져 누수(漏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선정 사유로 들었다.

청주시, 하수관 정비에 민간자본 유치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 7월 11일, 정비가 시급한 하수관 정비를 위해 343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오는 2010년까지 상당구 탑동·사직동, 흥덕구 봉명동 등지의 하수관 43.4km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미 지난 1월 청주친환경(주)과 민간자본 투자와 사업시행방법, 철차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지난달 1차적으로 상당구 탑동과 석교동 일원 공사를 착공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뒤 13개월

간 성과보증을 거쳐 향후 20년간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20년간 국비(50%), 도비(25%), 시비(25%)를 확보해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하수관 관리로 지하수 오염방지와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 제고에 따른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증대, 하수관내 퇴적물로 인한 악취방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주시, 신관배수관 확장 조기준공

충청남도 공주시가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신관배수관 확장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45억원을 투입해 옥룡동-공주대교-장기농공단지-전막사거리-보건소 앞 6km구간의 신관배수관로 확장사업이 지난 2004년 착공, 오는 12월이 준공예정이었으나 이달 말까지 앞당겼다는 것. 신관동을 비롯한 강북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됨에 따라 용수수요가 크게 늘어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조기 준공으로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강북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공 중인 공사가 이 달 말까지 마무리 되면 강북지역의 물 부족 해소는 물론 신금택지 개발지구에도 완벽한 수도물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순조



전라북도 전주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주하수처리장 1, 2단계 기존시설 개량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 6월 26일 밝혔다.

전주시가 진행 중인 하수처리장 공사는 지난 2004년 개정된 하수도법의 강화된 질소, 인 수질기준에 맞추고자 총 600억원을 투자해 내년 4월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고도처리공법으로 운영 중인 3단계 시설을 포함해 시의 하수처리용량 403천톤/일 전량을 고도처리로 사업을 완료케 된다. 이에 따라 T-N(총질소)이 60에서 20이하로, T-P(총인)이 8에서 2이하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15.2에서 10이하로 낮아져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시

회원소식

설계량으로 만경강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조기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처리수를 재이용(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덕진공원 호수유지용수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관계자는 “오염 총량제 시행을 대비해 만경강 상류지역의 공공부문 오염 총량을 줄이고 만경강 하류지역의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하수 관거정비 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경감(50%→20~30%)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군, 해남천을 물고기가 노는 ‘생태하천’으로



전라남도 해남군이 해남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이는 해남천을 도심 속에 잠재된 새로운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창출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근린공원으로 활용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다용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남군에서는 해남천의 특수성을 감안해 총 구간을 해남읍 해리 금강저수지 아래부터 읍 북평리 하천까지 8.6km를 정하고 2007년부터 3년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천이 자연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천바닥의 시멘트 대신 다양한 크기의 돌들이 들어서고 하천 주변 곳곳에 돌과 나무, 꽃들이 어우러진 조경시설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 각종 체육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이라며 “밤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 꿈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군, 맑은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순조



전라남도 구례군은 하천 수질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560억원을 들여 구례읍과 마산면 일

대 생활하수관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군은 지난 5월 현재 총물량 대비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3~2004년 사업비 94여억원을 투입해 구례읍 오봉리와 산월리, 마산면 마산리와 냉천, 황전리 일대 하수관거 정비를 마쳤고, 2단계 1지구 사업도 86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2005년에 걸쳐 구례읍 북봉리와 봉동리 일대도 하수관거를 모두 정비했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구례읍 백련·봉북·봉동·산정리 일원 2단계 2지구 사업도 공정률 22%를 보인 가운데 원만히 추진 중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하수관로사업은 수질환경 개선뿐 아니라 정화조를 따로 설치하거나 청소할 필요가 없어 오수처리시설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추진 원할



제주도 제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30억7천6백만원을 투입해 강관 24.25km와 노후한 상수도관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하절기 급수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비 22억9천1백만원을 투입, 노후상수도관 시설지역인 제주시청 남쪽 및 서쪽지역, 도련1동, 한라

일부 동쪽지역, 금천마을, 월두마을의 급·배수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평동 지역 급·배수관 1.9km에 대해서도 교체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370억6천8백만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638.9km를 정비했으며 올 3/4분기 내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주)한국화이바 - 함양공장 준공



‘녹없는 물’을 위한 유리섬유관 생산 업체인 한국화이바는 지난 7월 13일 500여명의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서 42,000평 규모의 동양최대 파이프공장의 준공식을 가졌다.

한국화이바는 1972년에 설립되어 유리섬유와 탄소섬유 등의 첨단복합소재의 원료에서부터 우주, 토목·건축, 전기전자, 철도차량,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 쓰이는 복합재료제품 및 생산설비, 시험장비까지 자체 개발하여 일괄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서, 이번 함양공장 준공을 통해 관경 $\phi 150 \sim \phi 3,000$ 까지의 상·하수도용 ‘유리섬유관’을 연 1,200km 이상 생산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준공식에서 한국화이바 그룹의 조용준 회장은 “끊임없는 기술창조를 통해 국가의 산업화를 이룩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주)아이에스유코 - 독일 현지 지사 방문



아이에스유코는 자사의 임직원들이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맞아 독일 법인인 ISB Watertec GmbH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이에스유코는 지사 관계자와 기술적인 노하우

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표제품인 스케일 부스터가 설치된 현정(Evangelisches Krankenhaus - 뒤셀도르프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 등

을 견학하면서 스케일 부스터 설치를 추진한 시설물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견학지인 이 병원의 냉방배관(강관-SB200)과 급수배관(동관-SB150)에 설치된 스케일 부스터는 냉방배관의 녹과 스케일을 제거하여 냉방효율을 증대시키고 배관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었으며 급수배관의 청녹과 스케일, 물때를 제거하여 병원 내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독일방문을 통해 이 회사의 임직원들은 기업의 모토인 World Marketing을 실천하는데 기반이 될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으며, 심학섭 대표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직원들에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주)디씨피,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

디씨피는 자사의 고강성 PVC 이중벽관(분리형 편수칼라)이 2006년 제2회 정부조달 우수제품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분리형 편수칼라관이 고강성 PVC 이중벽관의 높은 품질과 함께 현장시공의 편리성을 함께 갖춘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주)삼진정밀, 대통령 표창 수상



벨브제조업체인 삼진정밀은 지난 5월 발명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단체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에 관해 업체 관계자는 "우리회사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발명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국내 벨브업계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큰 역할을 인정받아 기업상으로 최고인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디아이, 신임 대표이사 취임 및 창립 51주년 기념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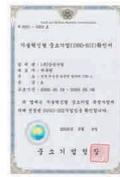
디아이는 지난 6월 1일 대표이사 이·취임식과 함께 6월 10일로 맞이하는 창립 5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전임직원 및 관계회사 임원이 모인 가운데 공로패 수여, 최명배 부회장의 이임사, 신임 대표이사 변재현 사장의 취임사 및 박원호 회장의 격려사, 그리고 장기근속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수자원기술(주), 서울시 강북정수사업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수자원기술은 현재 자사가 배출수 운영관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강북정수사업소가 2005년도 환경부 주관 '전국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회사가 지자체에 널리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삼성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으로 선정

삼성산업은 지난 6월 9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 기업으로 선



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INNO-BIZ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청이 주는 확인서이다. 또한 지난 6월 19일 국방부 신기술/우수제품 신자재 회사로 등록되어 국방부 산하 각 군 및 직할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기도 했다.

(주)KeepSol, 본사 이전

KeepSol이 최근 본사를 평촌으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본사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 아크로펠리스 1003호이며, 이전된 사무실의 대표전화는 031)387-8751이다.

(주)환금, 상호 및 CI변경



1947년 환금공작소로 출발한 환금이 회사 창립 60주년을 맞아, 해외로 뻗어가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지난 60년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60년을 창조하고자 회사명을 (주)환금에서 (주)에이치케이이벌브로 개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3일 신공장으로 확장이전(남원공장과 통합)을 하였다.

(주)류성산업개발, 상호 변경



류성산업개발이 벽진E&C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CI를 선보였다. (주)벽진은 최근 산업현장의 첨단플랜트 배관 및 설비에 급속

한 산업환경 변화 및 상수도 등 라인의 설비공사에 있어서 단수(차단)으로 인한 민원제기 및 교통통제의 어려움에 따라 지난 95년 HOT TAPPING 공법을 도입, 각종 산업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상하수도인이면 누구나 보는 협회지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소식을 담아보세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아래의 협회지 담당자에게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소식을 소중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기획처 홍보팀 신재택(02-3156-7731)

email jtshin@kwwa.or.kr